

##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정책모형에 관한 연구

손은일 · 星野敏\*

한국국제대학교 경영학과 · \*日本京都大学

### A Study on Policy Model of Promotion Project for Local Industry for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Son, Eun-Il · Satoshi Hoshino\*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Kyoto University, Japan*

**ABSTRACT** : This study postulates a partial mediation model(study model I) and a whole mediation model(study model II) to examine the effect on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of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in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while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didn't have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whole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I and II,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s achieved afte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Key words** :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Policy Model, Promotion Project for Local Industry

## 1. 서론

글로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지방화가 함께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스스로 세계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와 국제화 전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는 이러한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임형백,

유승주, 2006). 국가혁신체계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주로 산업과 연관된 기술혁신 및 유관 산업간 연계망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신지식과 기술을 도입 및 확산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발전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관련성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비제도적 연계망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혁신체계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산업정책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내생적 성장론의 패러다임(paradigm)에 의한 산업발전전략이라 볼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별 전략산업의 발전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한다(임형백, 이성우, 2004).

Corresponding author : Son, Eun-Il

Tel : 055-751-8384

E-mail : winning21@naver.com

이러한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물부(이하에서는 ‘농림부’로), 지식경제부 등에서 90년대 후반부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활력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되었고, 농림부에서는 기존의 지역특화사업과는 차별화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란 지역 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조 및 기술을 결합하여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향토산업은 지역의 산업, 기업 및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들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서 지역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고, 대부분 향토산업들과 전후방 연관업종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조직을 형성하여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이정갑, 임용택, 2011).

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부는 2006년 1월 19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200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여건을 기초로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 총생산 증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동필 등, 2007).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향토산업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사업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방향이 다른 관련 정책에 비해서 가장 포괄적이고, 사업의 수립과 선정과정의 방향성 공모제로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이관률, 2010).

그러나 현재까지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의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해 내고 이를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급효과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어촌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사업 종료 이후의 자생력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및 평가지표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성과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을 관련되는 농어촌지역정책에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취지와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모형을 제시하고, 농어촌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선행 요인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선정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부터 각각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의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향토산업은 학술적 개념이 아닌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도입·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향토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폭 넓은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이관률, 2010). 이관률(2010)은 향토산업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향토산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성공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규범적 접근인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옥선 등(2007)은 향토산업육성과 관련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향토산업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산업화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와 같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이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국내 지역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해온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메카니즘을 통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내생적 지역발전에 두고, 이러한 내생적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선정하여 정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과 관련된 몇몇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관률(2010)은 향토산업 관련정책은 지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진 향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전략으로써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외부자원의 유입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외부자원의 유입은 향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과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병오, 김태연, 2009). 즉,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해줌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박주영과 송미령(2007)은 낙후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에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추진체계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활력사업의 대상 지역은 대부분 산업 쇠퇴와 인구감소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제반 여건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들인 만큼 지역 스스로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상환(2005)의 연구에서는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되어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어온 지역을 자생적인 발전동력을 찾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자립적이고 활력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소득 향상 및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활력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총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신활력사업 시행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유호룡(2007)은 지방의 혁신 행정이 관 주도적인 역할에서 주민에 의한 행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창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권 신장을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과 혁신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분권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도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주체들인 지역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지역사업가, 지역주민, 지역대학, 지역의 전문가 집단이 먼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유해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기타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지역은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다고 해도 자생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향토산업육성사업 취지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의 하위차원으로 교육사

업, 네트워크 사업, 국내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자율성을 선정하였으며, 추진체계구축의 하위차원으로는 추진체계 구성사업, 추진체계 활성화사업을 선정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위차원으로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외부지원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S/W에 지원하고 산학연관 등의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 등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요구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추진모형을 제시하여 정책적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추진체계구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생적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Figure 1, Figure 2와 같이 부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과 완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I를 설정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분매개와 완전매개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은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내생적 지역발전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지역혁신역량강하나 추진체계구축을 완전매개로 한 연구모형도 검토했으나, 향토산업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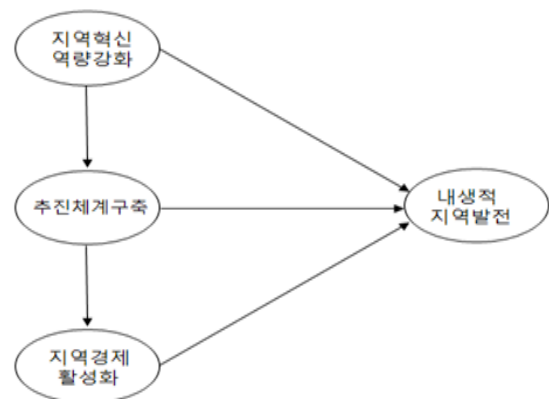


Figure 1 본 연구의 연구모형 I.

성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역혁신역량강화나 추진체계구축을 주요한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생각함으로 이들 모형을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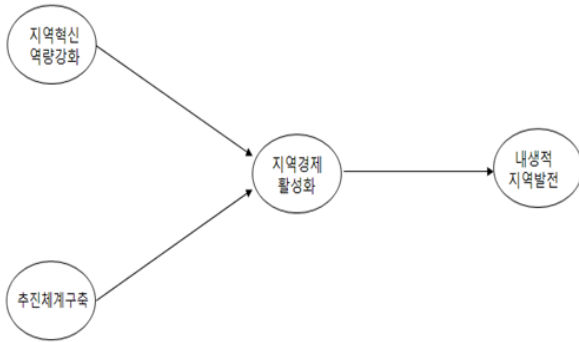


Figure 2 본 연구의 연구모형 II.

## 2. 가설설정

연구의 모형에서 계획되어진 연구의 목적과 구조에 근거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내생적 지역발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연구모형 I과 연구모형 II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1 :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추진체계구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2 :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3 : 추진체계구축은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4 :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5 :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1 :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2 :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3 :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자료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각 시군에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응답 의뢰를 하고, 조사대상자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설문지는 2012년 3월에 280부를 배부하여 총 16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실증조사의 변수들은 요인으로 규합하는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에 따른 각 요인의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도의 평가와 경로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 5.0을 통한 공변량 구조분석 방법(SEM)을 이용하였다.

## 5. 설문지 구성

첫째,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교육사업, 네트워크사업, 국내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자율성 등의 5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교육사업 8개 문항, 네트워크사업 8개 문항, 국내연수사업 4개 문항, 해외연수사업 4개 문항, 자율성 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둘째, 추진체계구축은 추진체계 구성사업,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등의 2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추진체계 구성사업 6개 문항,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4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 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외부지원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8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문항은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브랜드화 프로그램 4개 문항, 유통 프로그램 4개 문항, 수출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축제 프로그램 4개 문항, 외부지원 프로그램 4개 문항, 도농교류 프로그램 5개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넷째, 내생적 지역발전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은 총 7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다섯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결혼유무, 연령, 참여형태, 직업분야, 참여기간, 학력, 재직기간의 8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전체의 81.7%가 남성이고 여성은 18.3%의 비율을 형성하고 있었다. 기혼자는 87.6%이고, 미혼자는 12.4%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7.1%, 40대가 40.9%, 50대가 37.3%,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이 4.7%이었다. 참여형태별로는 지자체공무원이

Table 1 표본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38	81.7
	여	31	18.3
결혼유무	기혼자	148	87.6
	미혼자	21	12.4
연 령	30대	29	17.1
	40대	69	40.9
	50대	63	37.3
	60대 이상	8	4.7
참여형태	지자체공무원	48	28.4
	운영위원회	23	13.6
	실무추진단	70	41.4
	지역주민	28	16.6
참여기간	6개월 미만	18	10.7
	6개월-1년 미만	25	14.8
	1년-2년 미만	69	40.8
	2년-3년 미만	35	20.7
	3년 이상	22	13.0
학 력	고졸	28	16.6
	전문대졸	28	16.6
	대졸	82	48.5
	대학원졸	31	18.3
재직기간	1년 미만	17	10.1
	1년-5년 미만	33	19.5
	5년-10년 미만	31	18.3
	10년-20년 미만	42	24.9
	20년 이상	46	27.2

28.4%, 운영위원회가 13.6%, 실무추진단이 41.4%, 지역주민(세부사업 참여)이 16.6%였다.

참여기간은 6개월 미만이 10.7%, 6개월-1년 미만이 14.8%, 1-2년 미만이 40.8%, 2-3년 미만이 20.7%, 3년 이상이 13.0%이었다. 그리고 학력은 고졸 16.6%, 전문대졸 16.6%, 대졸 48.5%, 대학원졸 18.3%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 10.1%, 1-5년 미만이 19.5%, 5-10년 미만이 18.3%, 10-20년 미만이 24.9%, 20년 이상이 27.2%이었다.

### 2.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의 검증을 위해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제시된 모든 연구변수의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7 이상으로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요인분석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법인 요인추출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통한 직각회전을 이용하였다.

Table 2는 지역혁신 역량강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사업은 8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네트워크사업도 8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자율성도 5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해외연수사업은 4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국내연수사업도 4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5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5.526%를 설명해주고 있다. 지역혁신역량을 설명할 수 있는 문항설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혁신역량을 설명하는 5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75.526%를 설명하고 있어 문항설계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추진체계구축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체계 구성사업은 6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추진체계 활성화사업도 4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2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85.586%를 설명해주고 있다. 추진체계구축을 설명할 수 있는 문항설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진체계구축을 설명하는 2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85.586%를 설명하고 있어, 문항설계가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브랜드화 프로그램, 유통 프로그램, 수출지원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외부지

Table 2 지역혁신 역량강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고유치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지역혁신 역량강화	교육사업	교육사업 2	.840	15.325	52.844	52.844	0.943
		교육사업 1	.832				
		교육사업 4	.765				
		교육사업 5	.725				
		교육사업 3	.717				
		교육사업 6	.673				
		교육사업 7	.629				
		교육사업 8	.621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사업 4	.774	2.217	7.646	60.491	0.940
		네트워크사업 2	.732				
		네트워크사업 3	.730				
		네트워크사업 6	.727				
		네트워크사업 8	.683				
		네트워크사업 7	.657				
		네트워크사업 5	.549				
	자율성	자율성 4	.866	2.098	7.236	67.727	0.898
		자율성 3	.806				
		자율성 5	.778				
		자율성 2	.762				
		자율성 1	.688				
해외연수사업	해외연수사업 3	.861	1.284	4.429	72.155	0.904	
	해외연수사업 4	.849					
	해외연수사업 2	.773					
	해외연수사업 1	.694					
국내연수사업	국내연수사업 3	.758	1.078	3.371	75.526	0.916	
	국내연수사업 4	.705					
	국내연수사업 2	.682					
	국내연수사업 1	.581					

원 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 등의 8개 요인이 각각 4개 문항씩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다.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8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85.3%를 설명해주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설명할 수 있는 문항설계가 적절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설명하는 7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82.982%를 설명하고 있어, 문항설계가 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생적 지역발전

Table 3 추진체계구축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고유치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추진체계 구축	추진체계 구성사업	구성사업 4	.845	7.784	77.836	77.836	0.962
		구성사업 1	.844				
		구성사업 2	.837				
		구성사업 3	.824				
		구성사업 5	.765				
		구성사업 6	.762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활성화사업 2	.864	1.075	7.749	85.586	0.951
		활성화사업 3	.844				
		활성화사업 4	.831				
		활성화사업 1	.773				

Table 4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고유치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지원 프로그램	수출지원 1	.903	16.410	51.281	51.281	0.972
		수출지원 3	.894				
		수출지원 2	.892				
		수출지원 4	.861				
	도농교류 프로그램	도농교류 3	.848	2.804	8.763	60.044	0.944
		도농교류 4	.829				
		도농교류 2	.823				
		도농교류 1	.722				
브랜드화 프로그램	브랜드화 2	.816	2.502	7.819	67.863	0.922	
	브랜드화 3	.804					
	브랜드화 1	.782					
	브랜드화 4	.701					
축제 프로그램	축제 2	.899	1.896	5.453	73.316	0.925	
	축제 3	.877					
	축제 4	.820					
	축제 1	.760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가공업체지원 1	.772	1.745	5.645	76.961	0.924	
	가공업체지원 2	.769					
	가공업체지원 3	.716					
	가공업체지원 4	.709					
유통 프로그램	유통 2	.776	1.742	3.220	80.181	0.927	
	유통 3	.768					
	유통 4	.759					
	유통 1	.577					
외부지원 프로그램	외부지원 2	.722	1.166	2.801	82.982	0.946	
	외부지원 3	.715					
	외부지원 4	.691					
	외부지원 1	.688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생산농가지원 2	.612	1.030	2.318	85.300	0.912	
	생산농가지원 3	.599					
	생산농가지원 1	.591					
	생산농가지원 4	.577					

은 7개 문항 모두 1 이상의 고유치를 가졌으며, 요인분석결과 추출된 단일요인은 전체 분산의 71.682%를 설명해주고 있다.

###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서 AMOS 5.0을 이용하여 전체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

Table 5 내생적 지역발전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변수 및 차원		문항	요인적재치	고유치	설명비율	누적비율	크론바하 알파계수
내생적 지역발전	내생적 지역발전	지역발전 5	.882	5.018	71.682	71.682	0.933
		지역발전 7	.865				
		지역발전 3	.856				
		지역발전 6	.853				
		지역발전 2	.849				
		지역발전 4	.811				
		지역발전 1	.806				

Table 6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요인	표준요인 적재치	표준오차	t	AVE	복합 신뢰도	적합지수
지역혁신 역량강화	교육사업	.856	.018	6.943	.789	.949	$\chi^2=359.125$ , $d.f=187$ , $p=.000$ , RMR=.030, RMSEA=.074 GFI=.909, AGFI=.853, IFI=.944, CFI=.943
	네트워크사업	.879	.014	6.838			
	국내연수사업	.844	.018	7.499			
	해외연수사업	.713	.036	8.200			
	자율성	.675	.025	8.640			
추진체계구축	추진체계 구성사업	.882	.014	6.176	.903	.949	
	추진체계 활성화사업	.910	.017	5.079			
지역경제 활성화	가공업체지원 프로그램	.828	.017	7.802	.723	.954	
	생산농가지원 프로그램	.866	.013	7.284			
	브랜드화 프로그램	.814	.017	7.932			
	유통 프로그램	.838	.020	7.687			
	수출지원 프로그램	.672	.029	8.864			
	축계 프로그램	.652	.032	8.895			
	외부지원 프로그램	.716	.025	8.607			
도농교류 프로그램	.693	.028	8.701				
내생적 지역발전	지역발전 1	.821	.017	7.576	.801	.966	
	지역발전 2	.831	.021	8.161			
	지역발전 3	.811	.022	8.345			
	지역발전 4	.758	.031	8.612			
	지역발전 5	.877	.016	7.042			
	지역발전 6	.829	.019	7.695			
	지역발전 7	.853	.024	7.362			

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2 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하나의 잠재적 요인으로 변환시켰다. Table 6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 값들은  $\chi^2=359.125$ ,  $d.f=187$ ,  $p=.000$ ,  $RMR=.030$ ,  $RMSEA=.074$ ,  $GFI=.909$ ,  $AGFI=.853$ ,  $IFI=.944$ ,  $CFI=.943$ 으로 적합도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Bagozzi와 Yi(1988)가 제시한 기준(각각 0.7 이상, 0.5 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항목들과 구성개념들을 연결하는 표

준화 요인적재치가 통계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적이기 때문에( $t>1.96$ ) 집중타당성이 입증되었다(Anderson & Gerbing, 1988).

Table 7은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상관계수의 95% 신뢰구간 추정치(상관계수 $\pm 2$ \* 표준오차)에 1.0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Anderson & Gerbing, 1988)과, Table 6의 각 구성개념 AVE가 Table 7의 대각선 위쪽에 나타난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Fornell & Larcker, 1981)을 충족되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입증되었다.

Table 7 구성개념간 상관행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내생적 지역발전
지역혁신 역량강화	3.83	0.59		.719	.607	.372
추진체계 구축	4.10	0.64	.848***(.038)		.672	.490
지역경제 활성화	3.90	0.58	.779***(.037)	.820***(.035)		.533
내생적 지역발전	4.20	0.62	.610***(.031)	.700***(.032)	.730***(.031)	

주) N=169, \*p < 0.10 \*\*p < 0.05 \*\*\*p < 0.01, 대각선 아래쪽은 구성개념간 상관계수(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대각선 위쪽은 구성개념간 상관자승치.



#### 4. 연구모형 I의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내생적 지역발전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각각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내생적 지역발전 간에 관계에 있어서 추진체계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I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chi^2=364.193$ ,  $d.f=188$ ,  $p=.000$ ,  $RMR=.032$ ,  $RMSEA=.075$ ,  $GFI=.907$ ,  $AGFI=.850$ ,  $IFI=.942$ ,  $CFI=.942$ 를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삼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검증 결과는 Figure 3에,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

신 역량강화는 추진체계구축에 유의한 영향( $estimate=.869$ ,  $p=.000$ )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I-1은 채택되었다. 둘째,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 $estimate=.842$ ,  $p=.000$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2는 채택되었다. 셋째, 추진체계구축은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estimate=.377$ ,  $p=.067$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3은 기각되었다. 넷째,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estimate=.084$ ,  $p=.566$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 $estimate=.479$ ,  $p=.000$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5는 채택되었다.

#### 5. 연구모형 II의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내생적 지역발전 간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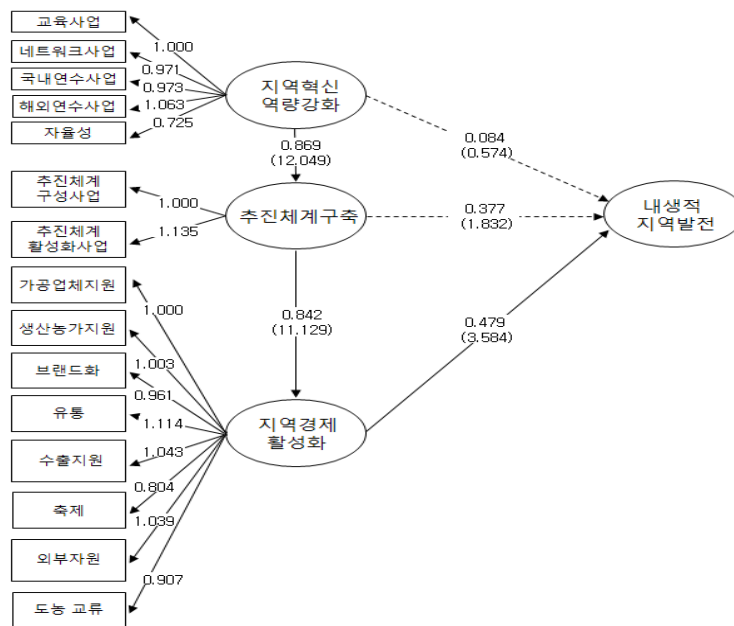


Figure 3 연구모형 검증 결과.

Table 8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연구모형 I)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여부
1	지역혁신 역량강화 → 추진체계구축	.869	.068	12.049	.000	채택
2	추진체계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842	.074	11.129	.000	채택
3	추진체계구축 → 내생적 지역발전	.377	.191	1.832	.067	기각
4	지역혁신 역량강화 → 내생적 지역발전	.084	.127	0.574	.566	기각
5	지역경제 활성화 → 내생적 지역발전	.479	.127	3.584	.000	채택

모형을 각각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및 추진체계구축과 내생적 지역발전 간에 관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완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I의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II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살펴보면  $\chi^2=517.742$ ,  $d.f=190$ ,  $p=.000$ ,  $RMR=.036$ ,  $RMSEA=.077$ ,  $GFI=.902$ ,  $AGFI=.853$ ,  $IFI=.933$ ,  $CFI=.932$ 을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삼는 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검증 결과는 Figure 4에,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Table 9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 $estimate=.432$ ,  $p=.000$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I-1은 채택되었다. 둘째,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영향( $estimate=.647$ ,  $p=.000$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I-2는 채택되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 $estimate=.690$ ,  $p=.000$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II-3은 채택되었다.

지금까지 부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과 완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I의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완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I의 결과가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추진체계구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낸 이후에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확인하고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서도 본 연구의 연구모형(I, II)에 대한 가설검증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산·학·연·관 등의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업추진이 미흡한 사업단을 확인하면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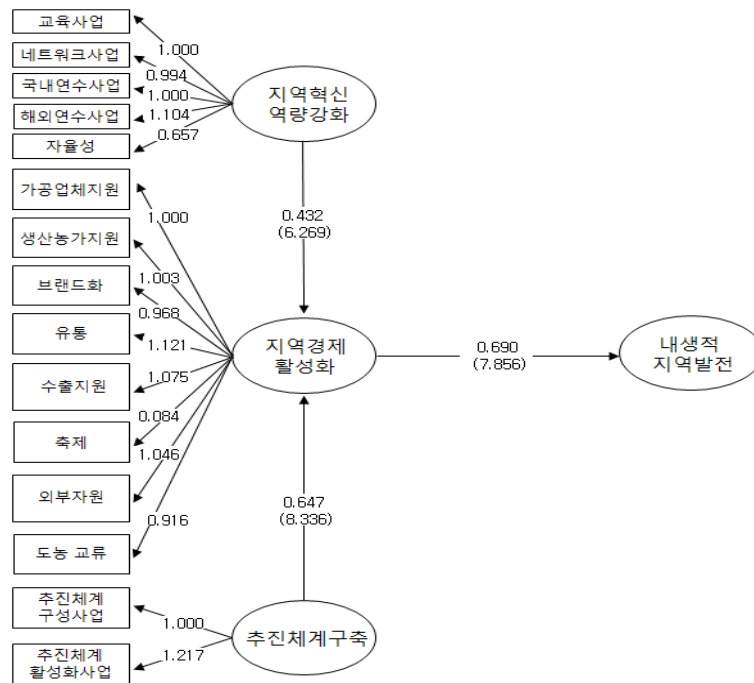


Figure 4 연구모형 검증 결과.

Table 9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연구모형 I)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p	여부
1	지역혁신 역량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432	.054	6.269	.000	채택
2	추진체계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647	.066	8.336	.000	채택
5	지역경제 활성화 → 내생적 지역발전	.690	.089	7.856	.000	채택

중의 하나가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였고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참여자들의 갈등과 역량의 부족으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부진 사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업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성과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V. 결 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의 향토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지역 총생산 증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한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S/W에 지원하고 산·학·연·관 등의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 등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요구받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서 추진모형에 대한 검증은 시도하여 정책적 효과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주요 목표를 내생적 지역발전이라 보고, 농어촌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선행 요인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선정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부터 각각 추진한 전국의 85개 사업단의 참여주체를 대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관계에 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부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과 완전매개를 전제로 한 연구모형 II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연구모형 I의 결과에서는 첫째,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추진체계구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진체계구축은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모형 II의 결과에서는 첫째, 지역혁신 역량강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진체계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는 내생적 지역발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증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모형의 1의 경우 지역혁신역량강화 → 내생적 지역발전, 추진체계구축 → 내생적 지역발전의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완전매개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혁신역량강화 → 추진체계구축 → 지역경제활성화 → 내생적 지역발전의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지향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혁신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급하게 추진함으로써 참여주체들의 의견대립, 갈등, 전문 인력의 부족, 지속적인 추진의 어려움, 적극적인 주민참여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어 기대성과에 못 미칠 수 있다.

한편 연구모형 1의 결과와 연구모형의 2의 공통점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완전매개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연구모형 1에서는 순차적으로 지역혁신역량강화를 하고난 후에 추진체계구축을 진행하고 그 후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인 반면에, 연구모형 2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무한정 많은 충분을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현실적 제약조건 하에서 지역혁신역량강화와 추진체계구축은 동시에 추진하고 그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 2의 실증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의 2의 완전매개모형에 대한 실증연구결과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모형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와 추진체계구축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낸 이후에 내생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내생적 지역발전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향후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유사한 농어촌지역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사업의 단편적인 성과위주

의 평가로 인센티브나 패널티의 결정보다는 지역혁신역량강화와 추진체계구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실행하고, 2차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지역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취지, 사례 분석 및 실증연구 분석을 통하여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체계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추진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지역정책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다만, 설문을 통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연구의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정책모형을 모든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에 보편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대연구를 시도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들이 연구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분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추진주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지역순환경제체계 구축 등을 고려한 농어촌지역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김영주, 星野敏, 손은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모형 연구”, 농촌계획, 18(3), 1-9.
2. 노상환, 2005, “신활력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창녕군의 사례-, Vol. 11, 29-42.
3. 박주영, 송미령, 2007, “신활력사업 추진의 쟁점과 과제”, 농촌경제, 30(1), 83-108.
4. 손은일 외, 2009, S/W중심 농촌산업정책의 성과관리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5. 손은일, 星野敏,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자가진단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8(3), 43-45.
6. 안옥선, 김미희, 안윤주, 박한식, 2007,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 -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7(2), 225-267.
7. 유호룡, 2007, “신활력사업과 지역혁신”, 제23권, 189-205.
8. 이관률, 2010, “향토산업의 선정과정과 선정기준의 영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24(3), pp. 33-56.
9. 이동필, 김용렬, 최경은, 강민수,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이병오, 김태연, 2009, “식품산업 클러스터 형성정책과 단계별 발전전략”, 식품유통연구, 26(3), 1-28.
11. 이정갑, 임용택, 2011, 향토산업 육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고창군 복분자 천일염의 향토산업화를 중심으로 -, 한국도서연구, 23(3), pp. 55-80.
12. 임형백, 유승주, 2006, “농촌지역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 연구 - 특화산업과 지역내 총생산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12(3), 67-80.
13. 임형백, 이성우, 2004, “농촌사회의 환경과 기능”, 서울대학교 출판부.
14. Anderson, J. C. and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411-423.
15. Bagozzi, R. P. and Yi, Y., 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Marketing Science, Vol. 16, 74-94.
16. Fornell, C. and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39-50.

접 수 일: (2012년 10월 8일)

수 정 일: (1차: 2012년 10월 22일, 2차: 10월 30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30일)

■ 3인 익명 심사필